

원더걸스, 고별노래로 각자의 길 간다

‘그려줘’ 직접 작사·작곡... 10년 활동 기간 함께 성장하고 추억 공유한 팬 향한 감사의 마음 담아

지난 10일 고별곡 ‘그려줘’를 발표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그룹 ‘원더걸스’(유빈·예은·선미·혜림) 멤버들이 이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팬 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혜림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Thank you’라는 글자가 적힌 사진과 함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선미 또한 ‘전 세계 원더풀 팬에게 고맙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자정 공개된 이들의 신곡이자 굿바이 곡인 ‘그려줘’는 엠베·올레·소리바다·네이버·벅스·지니에서 음원 순위 1위에 오르며 식지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이 노래는 ‘원더걸스’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로 10년 활동 기간 함께 성장하고 추억을 공유한 팬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겼다.

이날은 이들이 데뷔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이다.

유빈은 팬페이지에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원더걸스와 원더풀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지지와 응원은 절대 절대 잊지 못할 삶의 한 부분으로 끝까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빈은 이어 “10년 동안 원더걸스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팬들 잊지 않고 앞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며 “본에 넘치는 사랑줘서 고맙고 고맙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응원과 믿어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나의 원더풀들. 항상 곁에서 묵묵히 힘이 돼줘서, 버텨줘서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지난 10일 고별곡 ‘그려줘’를 발표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그룹 ‘원더걸스’ 혜림·선미·예은·유빈(사진왼쪽부터)

지켜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원더풀은 원더걸스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다. 앞서 원더걸스는 지난달 28일 팀 해체를 선언했다.

소속사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멤버 간에, 또 회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의논을 한 결과 그룹 ‘원더걸스’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은은 전날 “원더걸스 10주년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 어떤 말로도 무엇으로도 부족할

이별이지만 가장 저마다의 인사는 늘 그랬듯 음악인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동안 원더걸스를 사랑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들은 아이돌 걸그룹의 전성기를 열어젖혔다고 평가받는다.

2007년 싱글 앨범 ‘더 원더 비긴스(The wonder begins)’로 데뷔했다.

선미·소희·유빈·예은·선미로 구성된 이 팀은 ‘넬 미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모으며 최고 걸그룹 반열에 올랐다.

이후 ‘노바디 소 핫’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원더걸스는 미국 진출 실패, 2015년 선미와 소희의 탈퇴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와이 소 논리를 다시 성공시키며 건재함을 일리기도 했다.

한편 유빈과 혜림은 JYP엔터테인먼트에 남아서 각자 개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미와 예은은 새 소속사를 찾고 있다.

/뉴스

‘전북·울산 ACL 출전 희비’... 클래식 8경기 일정 조정

전북 현대심판 매수 사건으로 출전권 박탈 지난 시즌 리그 4위 울산 현대 플레이오프 출전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일부 경기 일정이 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구단 변경에 따라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8경기의 경기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가 심판 매수 사건으로 올해 챔피언스리그(ACL) 출전권이 박탈되자 지난 시즌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한 울산 현대가 올해 ACL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얻었다.

이에 연맹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북과 울산의 경기를 일부 조정했다.

먼저 3라운드 울산-상주전은 오는 3월18일에서 3월19일로 당겨졌으며, 인천-전북전은 3월19일에서 18일로 변경됐다.

이어 7라운드 전북-포항전이 4월22일에서 4월23로, 전남-울산전이 4월23일에서 4월22일로 바꿨다.

12라운드 전북-인천 경기는 5월20일에서 21일로 하루 늦춰졌고, 울산-전남전이 5월 21일에서 20일로 시간을 옮겼다.

32라운드 전북-대구전이 9월23일에서 24일로, 울산-전남의 9월24일 경기가 23일로 변경됐다.

/김민근기자



부안군체육회, 전북도민체전 상징물 선정

부안군체육회는 오는 4월 부안에서 열리는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포스터와 엠블렘, 슬로건 등 상징물을 선정하고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 체육회는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서 열리는 제54회 전북도민체전과 관련해 전북도 및 부안군의 기상·발전상·미래상 등을 담은 포스터와 엠블렘, 슬로건 등 상징물을 선정했다.



이번 상징물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작품을 결정했다.

포스터는 부안의 풍성한 자연관광 자원을 담은 북 주머니를 배경으로 역동적인 붓 터치로 합창계 달리는 선수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를 표현한 작품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엠블렘은 오복·오감을 상징하며 동시에 전북도민의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소품하고 아름다운 화합을 이뤄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기원함을 담은 작품이, 슬로건으로는 ‘축복의 땅 부안에서 생동하는 전북의 꿈’이 선정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선정된 상징물을 활용해 전북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북 14개 시군 5만여 명이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200만 전북도민이 오복·오감을 누리는 힐링의 도민체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4회 전북도민체전은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안군 일원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 대화합의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익산시, 2018 전국체육대회 준비 돌입

익산시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분야별 관련 부서장 및 읍·면·동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각 소관 부서별로 전국체전을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교통·숙박·주차 등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익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익산시는 앞으로 대회전까지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도 전국체전 담당관은 “2018년 전국체전은 시민이 모두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체전을 계기로 성숙된 시민의식은 물론 전국에 익산의 문화·관광 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99회전국체전과 제88회장애인체전은 2018년 10월에 열리며, 주 개최 도시인 익산시에서는 개최도시를 비롯한 축구, 야구, 육상 등 12개 주요 종목이 치러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